

전남 해상풍력산업 곳곳에 '암초'

신안군 자은·임자도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난항
영광군, 송전선·철탑 66개 통과에 "명산·관광지 훼손" 변경 요구
단지 착공 시기 줄줄이 연기 ... 정부·정치권 적극적인 역할 시급

전남의 핵심 현안인 8.2GW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주민 반발에다 기초지자체, 정부부처 등과 잇박자를 내는 것은 물론 관련 법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착공 시기가 줄줄이 연기되면서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을 글로벌 해상풍력산업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전남도의 야심찬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군은 최근 전남도에 '해상풍력 공동발전 설비 건설사업'과 관련 공문을 보내 건설 예정지 변경을 요구했다. 신안 자은·임자도 일대에 추진중인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기 위해 구축할 고압(345kV) 송전선과 철탑 66개가 영광 5개 면(염산·군남·불갑·묘량·대마)을 통과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들 지역에는 영광의 핵심 관광사업 대상지가 있어 자연자원 훼손 및 관광자원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영광군은 "항화도 철산타워(111m) 조망권 훼손, 영광 대표 명산인 군남면 삼각산·묘량면 장암산·대마면 태정산 훼손,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차질 등이 불가피해 지역민 반대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광군은 현재 노선을 무안·함평 방향으로 변경해줄 것을 전남도와 한전에 요구한 상태다. 노선을 선정한 한전 측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중화 가능 여부나 계획 노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주거밀집 지역을 피해 검토한 최적 노선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영광군의회도 최근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전남도의회 장은영(더민주·비례) 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같은 주장을 했다.



영광군 백수읍 백수풍력발전단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풍력 발전기 설치 높이 문제도 국방안보를 내세운 국방부의 반대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방부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방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풍력발전기 높이(블레이드 포함)를 500피트(152m)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52m 이상 높아질 경우 장애물로 인한 레이더 차폐 문제가 생겨 군사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산업 부를 통한 5차례의 건의와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방부 등과의 간담회, 업무 협의 등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를 들어 1000피트(305m)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5MW짜리 풍력발전기 한 개를 세우는데 높이만 280m가 넘는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다만, 전남도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군방공관제 사령부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전남도와 국방부가 각각 연구용역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교환해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사업은 착공 자체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늦춰지고 있다. 전력 계통(전력의 생산 및 수송에 필요한 설비)이 확보된 사업임에도, 6년 전인 지난 2017년 신안 자은도 해상에 99MW 규모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던 발전사업의 경우 착공 시기가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고, 올 상반기 예정됐던 99MW 규모의 발전사업 2건도 내년 하반기로 착공 시기가 늦춰졌다. 300MW 규모로 내년 상반기 예정됐던 발전사업도 같은 해 하반기로 연기됐다.

사업자들이 각각 입지를 발굴, 주민들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여러 부처에 얽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언제 국회회를 통과할 지 미지수다.

전남도는 정부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윈스톱 기구를 신설하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2021년 5월 발의된 이후 같은 해 9월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국내 항만 및 배후단지 확보도 시급하다. 목포신항의 경우 부지가 적고 군산항(낮은 지내력), 울산항(높은 물동량) 등도 문제점이 있어 해상풍력에 적합한 전용 항만 개발이 시급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가 올 해 4월 화원산단을 전용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투자 설명회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을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전용항만 등 인프라 확충, 관련기업 유치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23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KIA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오른쪽)과 이의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의 소속팀 스프링캠프 훈련장에서 볼펜 피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WBC '국가대표 타이거즈' 양현종·이의리·나성범 뜬다

3월 9일 호주와 B조 1차전

3월 개막하는 5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본격 담금질에 들어간다. <관련 기사 19면> 이강철 대표팀 감독을 필두로 코치 7명, 선수 28명은 15일 오전(한국시간) 합동 훈련의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의 웨스트우드 록 워터 그랜드 리조트에 집결했다. KIA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이의리, 외야수 나성범도 합류했다.

대표팀은 16일 오전 2시에 키노 스포츠콤플렉스에 모여 시차와 기후 적응 훈련으로 첫 연습을 시작한다. 이어 오는 27일까지 NC 다이노스, KIA 등 4팀과 연습경기를 치르며 실전 감각을 익힌 뒤 귀국해 3월 4일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9일 호주와 WBC 본선 B조 1차전을 치른다. 이후 일본(10일), 체코(12일), 중국(13일)을 만난다.

대표팀은 준우승을 차지한 2009년 2회 WBC 이래 14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4강 이상 진출을 노리고 있다.
/미국 투싼=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韓 이어 中도 "비자제한 해제"…40여일만에 정상화

"18일부터 단기·도착 비자 재개"

한국에 이어 중국도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5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

에 올린 공지를 통해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이민관리국은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을 고려해 18일부

터 한국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복구한다고 밝혔다.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 입국하는 경우, 초청에 응해 긴급한 비즈니스·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 공항과 항구에 도착한 뒤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비자 발급은 지난달 2일 한국의 대중국 제한 조치 시행 이후 40여 일 만에 정상화된다.

올해 양국 관계의 갈등 요소로 부상했던 비자 제한 공방이 해소됨에 따라 양국 정부와 민간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특전사 5·18 참배 '검은 베레모' 제창 갈등 ▶6면

한우 반값 '소프라이즈' ▶8면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붐을 달린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